

《독립신문》과 《순환일보(循環日報)》의 창간 동기에 대한 비교

이 민

중국 다롄외국어대학 한국어과 전임강사, 언론정보 전공
limin930@hanmail.net

I. 머리말

II.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 배경

III.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 동기

IV. 《독립신문》과 《순환일보》 창간 동기의 비교

V. 두 신문이 자국의 언론사상에 미친 영향

VI. 맺음말

I. 머리말

19세기에 자본주의 경제가 팽창하면서 서양의 자본주의 나라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그 세력을 뻗어오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서양의 문물도 동양 여러 나라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는데, 물론 언론도 그중의 하나였다. 이런 상황의 동양 각국에서 일찍 작성한 지식인들은 신문을 창간하여 자국의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중국에서는 1874년 중국 최초의 민간지(民間紙) 『순환일보(循環日報)』가 탄생했고, 한국에서는 1896년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이 탄생하게 되었다.

『독립신문』은 한국의 언론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독립신문』에 관해서는 언론학을 비롯하여 역사학, 독립운동사, 국어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독립협회 또는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분야와 정치학·법학·외교사는 물론이고, 교육학·여성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도 『독립신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다. 『독립신문』이 한글 전용 신문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국어학 쪽에서도 어느 분야 못지않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최초의 민간지로서 중국 언론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순환일보』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순환일보』의 창간자 왕도(王韜)가 살아 있던 시대는 오래되었고, 당시 중국의 국가 정세가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순환일보』는 중국 국내에 보존된 게 없다. 다만 1977년 9월, 홍콩 정부가 홍콩의 역다리[維多利亞] 거리 근처에 있는 빅토리아 여왕 기념비 밑에서 1897년 문물(文物) 주머니를 발굴했을 때 발견된 1874년 7월 22일 발행된 『순환일보』가 오늘날 『순환일보』에 관한 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가 되고 있다.¹⁾ 한편 상해(上海)의 『신보(申報)』와 『만국공보(萬國公報)』에서 전재(轉載)했던 『순환일보』의 기사들이 있으나 그 분량이 매우 적다.²⁾ 이처럼 『순환일보』에 대한 연구에는 결림돌이 많은 실정이다.

1) 忻平, 『王韜評傳』(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0), 120쪽.

2) 方漢奇, 『中國新聞事業通史』 第一卷(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478쪽.

그동안 《순환일보》에 관한 연구논문과 단행본이 적지 않게 나왔는데, 《순환일보》 자체에 관한 연구보다는 창간자인 왕도에 관한 전기적(傳記的) 연구와 그의 사상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순환일보》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에 관한 비교 연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최초의 민간지였던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 동기에 대해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II.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 배경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 동기는 무엇이며, 이들 두 신문의 창간 동기 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 중국의 각종 문헌을 통하여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 배경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독립신문》과 《순환일보》 창간의 시대적인 배경

신문의 존립과 성격 그리고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 상황의 변수에는 이념적 제재, 정치·경제·사회적 발전, 기술적 발전 등 여러 가지가 있다.³⁾ 그러면 《독립신문》과 《순환일보》가 창간된 19세기 말에 중국과 한국의 국내 상황은 어떠했는가?

1) 《독립신문》 창간의 시대적인 배경

1876년 한국은 일본의 강요로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었다. 이어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과도 수호조약을 맺고, 이들 서양 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해야만 했다. 그러면서 내외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던 당시의 한국 지배층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는데, 그중 하나는 위정척사파였고, 또 다른 하나는 개화파 계열이었다. 이들

3) 이상철, 「서재필과 《독립신문》 사상에 관한 연구」, 『언론연구논집』 제13집(중앙대학교, 1991), 30쪽.

중 위정척사파는 주자학적 가치관, 즉 화이론적(華夷論的) 입장에서 중세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침략투쟁을 전개한 반면, 개화파는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낡고 뒤떨어진 정치·경제·사회 제도를 근대적으로 혁신하려 했으며, 외부적으로는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다.

이 개화파들은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자립, 자존하기 위해 사상 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사대관계와 사대의식을 크게 부정했으며, 한 국가로서의 독자성·독립성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한국사와 한국어, 한국 문자를 가르침으로써 한국 본위의 의식을 확립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1882년부터 청국(淸國) 군대는 한국에 계속 주둔하면서 한국을 종속국으로 지배하려고 획책했는데, 당시 청국을 끌어들였던 민씨 정권은 청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여러 개혁 조치도 제대로 단행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지배계급은 두 계열, 즉 민씨 정권과의 타협 아래 중국의 양무론적(洋務論的) 방식을 취하여 한국사회를 개혁하려던 온건개화론파와 이와는 달리 민씨 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한 뒤 일본의 명치유신적(明治維新的) 방식을 취하여 한국사회를 개혁하려는 급진개화론파로 나뉘어 서로 반목을 일삼게 되었다. 김옥균(金玉均)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는 국가 재정난(財政難)을 타결하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올 것을 주장했으나, 일본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군대마저 민씨 정권에 접수되고 말았다. 그러자 1884년 2월 4일 김옥균 등은 민씨 정권을 제거하고 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정변은 민씨 정권이 끌어들인 청국 군대에 의해 진압됨으로써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⁴⁾

갑신정변 이후 약 10년 동안 한국은 다시 민씨 정권이 지배했다. 그러나 『독립신문』이 창간되기 2년 전인 1894년 2월 전라북도 고부(古阜)에서 전봉준(全琫準)이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깃발을 들고 동학혁명을 일으키자, 그 진압을 구실로 한국에 출병한 청국과 일본이 무력충돌을 일으키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청국은 패배를

4) 유재천, 「『독립신문』의 국문판과 영문판 논설 비교분석」, 한국언론학회언론사연구회 편, 『『독립신문』과 한·중·일 근대신문의 생성』(한국언론학회 언론사 연구회, 1996), 118~120쪽.

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청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은 대량의 병력을 서울에 투입시켜 무력으로 조선정계를 압도했다. 그러자 한국(조선)의 왕실은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거일인아책(拒日引俄策)’을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불만을 품은 일본은 1895년 10월 8일 군인 출신의 주한(駐韓)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오[三浦梧樓]로 하여금 일본의 낭인과 군인들을 한국의 궁궐에 난입케 하여 명성황후(明成皇后, 속칭 ‘閔妃’)를 시해하고 그 시체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을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켰다.⁵⁾ 그리고 명성황후와 암투를 벌여왔던 고종의 부군 대원군에게 다시 정권을 장악케 하여 친일적(親日的)인 제1차 김홍집(金洪集) 내각을 구성하고, 홍범(洪範) 14조를 제정, 발표하여 사회 전반의 근대적 개혁을 위한 갑오경쟁(甲午更張)을 단행케 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한국 국내에서 일본에 대한 국민의 적개심이 고조되면서, 각지에서 친일내각의 타도와 일본세력의 구축을 외치는 대규모의 항일의병운동, 즉 을미의병(乙未義兵)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친러세력들은 1896년 2월 당시 한국의 왕이었던 고종(高宗)을 러시아공사관으로 파천[俄館播遷]하고, 친러 내각을 조직하여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일본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에 대한 침략을 획책했으며, 한반도에 대한 침략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국제 외교 무대에서 외교적 거래를 통해 얻어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무력침략과 병행해서 경제침략과 언론탄압을 동시에 진행했다. 바로 이와 같은 정세 속에서 서재필(徐載弼)은 신문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나라의 정세를 알려주고, 국민을 계몽하고, 사회를 개화하기 위하여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순환일보』 창간의 시대적인 배경

중국은 오랜 역사와 고도의 정신문명(精神文明)을 자랑하던 나라였다. 그러나 청국 말기에 이르러 징세제도(徵稅制度)의 문란, 관리들의 부패와 비능률 등으로 인하여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바로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서양 열강들이 중국의 문호를 두드리면서 외교·통상·종교 등에 대한

5) 정진석, 『언론과 한국 현대사』(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20-21쪽.

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이 중국에 대하여 끊임없이 교역을 요구하자, 중국 황제는 특권상인에게만 교역권을 주면서 극도로 교역을 제한했다. 그러나 영국이 인도의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자,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와 국민들은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영국이 들여온 아편을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이에 대해 영국이 중국에 포격을 가함으로써, 제1차 청영전쟁(清英戰爭, 1839-1842년), 이른바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영국 전함의 우세한 화력(火力)으로 인하여 중국의 패배로 종결되고 말았으며, 중국은 영국과 굴욕적인 남경조약(南京條約)을 맺고, 중국의 5개 항구를 서양에 개방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들 개항장(開港場)을 통하여 서양의 문물이 홍수처럼 중국으로 밀어닥쳤다. 하지만 수많은 국내 문제의 수습에 급급했던 청조(清朝)는 서양 열강의 도전에 대응할 힘이 없었고, 전통적 사고에만 사로잡혀 있던 중국인들은 서양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너무 무감각했다. 그 결과, 중국의 전통적 질서는 서양에 의해 잠식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중국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다.⁶⁾

이렇게 되자 1850년 7월 대규모의 민중반란이 터졌으며, 홍수전(洪秀全)이라는 인물은 그의 무리를 이끌고 광서성(廣西省) 금전촌(金田村)에서 청국 군대에 대한 무력항쟁을 개시하면서, 1851년 9월 태평천국(太平天國)이라는 나라를 창건했다. 이러한 태평천국의 난(亂)은 대반란으로 치달아 1860-1862년에는 최고조에 이르면서 상해(上海)·영파(寧波) 등 개항지(開港地)에서 시작하여 내지(內地)로까지 반란이 확산되다가, 1864년 영국 군과 프랑스군의 힘을 빌려서 겨우 진압되었다. 그리하여 1851년부터 1864년까지 13년 동안 계속되었던 태평천국의 반란은 진정되었으나, 그 뒤에도 여러 소규모 반란이 빈번히 일어났으며, 이러한 반란들은 청조의 세력을 봉괴시키는 데 크게 작용했다.

한편 1860년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북경(北京)을 점령하면서 중국은 서양의 침략이라는 또 다른 국면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1858-1860년 사이에 중국과 서양 열강들 간의 제2차 조약이 맺어지면서 중국 대륙은 세계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모되었다.⁷⁾ 이러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역사적 상황 아래 중국은 서양의 군사적 우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6) 차배근, 『중국근대언론사』(나남출판사, 1985), 19-22쪽.

7) 차배근, 위의 책(1985), 22-25쪽.

군사적(軍事的) 서양화(西洋化) 내지 근대화(近代化)를 통하여 국내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대두하게 되었다. 또한 이른바 '자강운동'(自強運動)이라는 이름 아래 1860년대부터 근대화운동이 짹트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운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 것은 1840년 위원(魏源)이 내세웠던 '이이제의(以夷制夷)'라는 방책이었다.⁸⁾

바로 이와 같은 방책을 근거로 한 자강운동은 곧 중국의 외교·재정·교육·군사 등 각 방면에 걸쳐 파급되어갔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서양의 문물제도를 열심히 수용하기도 했는데, 특히 외국인들에게 개방되었던 개항장, 즉 '조차(租借)'라고 부르던 서양 제국의 조차지(租借地)에서는 서양인들로부터 서양의 근대적 경제체제와 활동 등을 열심히 배웠으며, 또한 서양의 정치적 제도와 여러 가지 문물, 예컨대 신문·학교·도서관·병원·상하수도 시설·가로등·포장도로 등과 서양인들의 높은 생활수준이 점차 그곳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⁹⁾ 그러면서 영국의 조차지였던 홍콩에서 중국 최초의 민간지인 『순환일보』가 1874년에 나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봉건적 전통사상이 깊이 자리 잡힌 내지(內地)의 중국 땅에서는 서양의 문물제도(文物制度)를 배워서 중국의 근대화를 이룩하자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구질서(舊秩序)를 강화하여 국내의 여러 내란(內亂)을 진압하자는 생각이 더욱 굳건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¹⁰⁾ 그리하여 1860년대부터 모처럼 시작되었던 자강운동은 1894-1895년 발발한 일본과의 전쟁, 즉 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중국이 패배하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 《독립신문》과 《순환일보》 창간의 언론사적인 배경

신문의 출현은 단순히 당시의 시대적 상황의 산물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신문이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발간된 최초의

8) 위원(魏源)은 '以夷制夷' 는 방책을 내세우며 첫째로 外夷(서양인)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심어 서로 다투게 하고, 둘째로 外夷의 우수한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첫 번째 전략은 잘못된 생각이었으나, 두 번째 생각은 올바른 것으로서 1860년대에 시작된 자강운동의 이론적 근거와 마찬가지였다고 하겠다[차배근, 위의 책(1985), 85쪽].

9) 차배근, 위의 책(1985), 94쪽.

10) 차배근, 위의 책(1985), 86쪽, 90쪽.

민간지였으나 최초의 신문은 아니었으며, 그 이전에도 신문이 없지 않았는데, 이들 이전의 신문들도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에 일종의 배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 이전에 한국과 중국에는 어떤 신문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에 어떠한 배경요인으로 작용했는가?

1) 한국 신문의 역사와 《독립신문》의 창간 배경

한국의 《독립신문》보다 중국의 《순환일보》가 22년이나 먼저 창간되었으며, 다른 근대신문들도 중국에서 먼저 탄생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국 신문의 역사와 그것이 《독립신문》의 창간에 미친 영향부터 고찰해 본다. 한국의 전통적 내지 전근대적(前近代的) 신문으로는 《조보(朝報)》 등이 일찍부터 발행된 바 있다.¹¹⁾ 그러나 한국 최초의 근대신문으로는 1883년 10월 31일 서울에서 창간한 《한성순보(漢城旬報)》를 들 수 있는데, 이는 1876년 일본과 수호조약을 맺은 이후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서양의 언론문물을 받아들여 정부기관인 박문국(博文局)에서 발간한 순간(旬刊) 신문이었다. 그러나 《한성순보》의 창간 이듬해인 1884년 12월 4일 일어난 갑신정변 시에 박문국이 소실(燒失)됨에 따라 발행이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한성순보》를 통하여 근대신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지식인들이 정부에 《한성순보》의 복간을 요청하자, 한국정부는 《한성순보》를 복간하는 대신 《한성주보(漢城周報)》라는 새로운 제호(題號)의 신문을 1886년 1월 25일 창간했다. 그리하여 매주 한 호씩 발행하다가 재정난과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창간 2년 뒤인 1888년 7월 폐간하고 말았으며¹²⁾, 그 뒤 1896년 《독립신문》의 창간 시까지 약 10년 동안 한국에는 한국인 발행의 근대신문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인(日本人)이 발행한 일본어 신문으로는 《인천경성격주상보(仁川京城隔週商報)》(1890.1.28 창간), 《조선순보(朝鮮旬報)》(1891.9.1 창간), 《조선신보(朝鮮新報)》(1892.4.15 창간), 《부산상황(釜山商況)》(1892.7.11 창간), 《한성신보(漢城新報)》(1895.2.16 창간), 《신조선(新朝鮮)》

11) 차배근, 「우리나라 조보에 관한 신문학적 분석고」, 『서울대학교신문연구소학보』 제17집 (1980), 65~102쪽.

12) 정진석, 「《한성순보·주보》에 관한 연구」, 『신문연구』, 1983년 겨울호, 1~8쪽.

(1894.12 창간) 등이 있었는데¹³⁾, 이들은 대부분 일본의 한국 침략을 위한 수단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한국에 관한 사건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성신보』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그 침략을 옹호하는 선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창간한 신문으로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일방적으로 옹호, 선전했다. 또한 『한성신보』는 을미사변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그러자 일본인 발행의 신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발이 커졌고, 한국도 ‘우리 자신의 신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조되었는데, 이러한 것도 『독립신문』의 탄생에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었다.¹⁴⁾

2) 중국 신문의 역사와 『순환일보』의 창간 배경

서양의 언론문물이 들어오기 이전, 중국에도 중국의 전통적·전근대적(前近代的) 신문으로서 『저보(邸報)』, 『조보(朝報)』, 『경보(京報)』 등이 존재했다.¹⁵⁾ 그러나 이 전통적 신문들은 서양의 근대적 신문들이 들어오면서 그에 밀려 사라지고 말았다. 중국으로 서양의 근대적 신문·잡지 등의 언론문물이 이입(移入)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 서양의 개신교(改新教)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건너오면서부터였다. 이 선교사들은 기독교의 포교 수단으로서 중문(中文)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그 최초의 잡지로는 1815년 8월 15일 런던만방선교회의 선교사 밀른(William Milne)이 창간한 『찰세속매월통기전(察世俗每月統記傳)』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최초의 근대적 중문 잡지는 중국 땅에서 발간한 것은 아니었으며, 말레이시아의 말라카(Malaca, 馬六甲)에서 발간하여 중국으로 들여다가 배포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뒤 1833년에는 중국 땅에서도 중문 잡지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독일의 선교사 구츠라프(Karl F.A. Gutzlaff)가 영국의 조차지였던 광주(廣州)에서 창간, 발행한 『동서양고매월통기전(東西洋考每月統記傳)』이었다. 그리고 뒤를 이어 1838년에는 역시 광주에서 『각국소식(各國消

13) 한원영, 『한국신문 한 세기』(푸른사상사, 2002), 43쪽.

14) 유훈, 「『독립신문』에 나타난 ‘언론자유’ 개념의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1994).

15) 차배근, 『중국전근대언론사』(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1쪽.

息)》이라는 또 하나의 중문 잡지가 나왔는데, 이 잡지가 창간된 1838년은 바로 영국과의 아편전쟁이 시작된 해였다.

아편전쟁이 1842년 영국의 승리로 끝나고 그해 8월 29일 체결된 남경조약(南京條約)에 따라 중국이 서양 열강에 문호를 개방하자, 이때부터 서양의 각종 문물이 홍수처럼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서 수많은 근대적 중문 잡지와 신문이 서양인들에 의해 속속 창간되었다. 남경조약에 따라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자, 그 이전에 말라카에 있던 영국의 영화서원(英華書院)도 홍콩으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영화서원에서는 1853년 중영문대조(中英文對照) 월간잡지인 《하이관진(遐邇貫珍)》을 발행하기도 했다.

한편 1856년에는 중문 신문도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홍콩에서 창간한 《중외신보(中外新報)》로서 영국인 라이더(G.N. Ryder)가 발행하고 있던 영문지(英文紙) 《데일리 프레스(Daily Press)》의 중문판(中文版) 일간신문이었다. 그 뒤 1860년대로 넘어오면서 《상해신보(上海新報)》(1861년 상해에서 창간), 《화자일보(華字日報)》(1964년 홍콩에서 창간) 등의 영문지 중문판 신문들이 서양인들에 의하여 속속 창간되었다. 그러자 중국인들도 신문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면서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중국인이 발행한 최초의 신문은 1873년 애소매(艾小梅)가 한구(漢口)에서 창간한 《소문신보(昭文新報)》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문신보》는 곧 폐간되었으며, 그 다음 해인 1874년 왕도가 홍콩에서 창간한 《순환일보》가 중국 최초의 민간지로서의 명예를 누리게 되었다. 왕도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관해서는 다음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신문과 잡지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순환일보》의 창간에는 그 이전에 중국에서 서양인들이 발행하고 있던 각종 신문과 잡지도 하나의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III.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 동기

위에서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서재필과 왕도가 각각 《독립신문》과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된 구체적 동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 동기의 공통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연구 목적이다.

1. 《독립신문》과 《순환일보》 창간자의 배경

위에서 우선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 배경으로서 시대적 요인과 언론사적 요인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요인 이외에 서재필과 왕도의 개인적 요인도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에 하나의 중요한 배경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독립신문》의 창간자 서재필과 《순환일보》의 창간자 왕도는 각각 어떠한 인적 배경의 인물이었으며, 이러한 인적 요인은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가?

1) 《독립신문》의 창간자 서재필의 인적 배경

서재필(호는 松齋)은 1864년 1월 7일 전라남도 보성군(賓城郡)의 한 훌륭한 가문에서 4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일곱 살 때쯤 상경하여 외삼촌 김성근(金聲根) 집에서 『사서삼경(四書三經)』 등의 한학(漢學)을 공부했다. 그리고 18세 때 별시문과(別試文科) 병과(丙科)에 세 번째로 급제하여 교서관(校書館) 부정자(副正字)에 임명되었다.¹⁶⁾ 그 후 서재필은 김옥균(金玉均)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 인사들과 사귀게 되면서 개화사상을 갖게 되었다.¹⁷⁾

1884년 7월 서재필은 김옥균 등이 일으킨 갑신정변에 적극 가담했다. 그는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했으나 일본에서 냉대를 하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10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했다.¹⁸⁾ 이 기간은 그의 나이 21세부터 32세까지의 기간으로서, 그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였다.¹⁹⁾

미국에서는 1886년에 라이노타입(Linotype)이라는 식자기(植字機)가 등장하여 신문 제작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교통과 통신의 기술적

16) 양국종, 「서재필 사상이 우리나라 근대화에 미친 영향」,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 위논문(1985).

17) 金道泰, 『서재필 박사의 자서전』(乙酉文化社, 1973), 56쪽.

18) 『윤치호일기』, 1895년 12월 26일조. 신용하, 『독립협회연구』(일조각, 1976), 7쪽에서 재인용.

19) 현종민, 『서재필과 한국 민주주의』(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16쪽.

발전은 신문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풀리처의 《뉴욕월드》지는 1884년도에 10만 부였던 발행부수가 1892년에는 37만 부를 넘어섰고, 면수도 14면에서 44면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신문 실태는 서재필의 언론사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서재필이 미국에서 20대를 보낸 1880년대 후반과 1890년대 초반의 미국 언론은 뉴 저널리즘(new journalism)의 전성기로서, ① 신문의 발행부수와 지면수가 급격히 팽창하여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으며, ② 신문에 의한 사회봉사와 사회개혁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③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원칙에 의한 사회비리와 정치적 부정에 대한 폭로 저널리즘이 크게 대두했으며, ④ 신문의 사설 기능이 강화되었고, ⑤ 신문 발행부수의 확장 수단의 하나로서 쿠폰제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미국 신문들의 발전된 모습과 사조(思潮)는 언론에 대한 서재필의 인식과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그가 귀국한 후 《독립신문》을 발행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서재필이 고국에 돌아와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 펼친 민주주주와 자유주의 언론사상을 보면 그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당시의 미국적 시대 상황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²⁰⁾

서재필이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변화의 진통을 겪었으며, 1894년 7월에는 갑오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이전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개화파 인사들에 대한 사면령(赦免令)을 내렸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새로 들어선 박정양(朴定陽) 내각은 서재필을 외무협판으로 임명하면서 그의 귀국을 종용했다. 또한 그 즈음 미국에 들렀던 박영효도 서재필에게 귀국을 권유하자, 서재필은 오랫동안 마음 속에 깊이 그리던 조국의 자유와 독립의 사상을 실천해보고자 귀국을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는 1895년 12월 26일, 고국을 떠난 지 1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직후인 1896년 1월 종추원 고문에 임명된 서재필은 국민들의 계몽을 위하여 신문을 발행하기로 하고, 《독립신문》의 창간 준비를 서둘러 그해 4월 7일 창간호를 냈는데, 이에는 특히 그가 미국에서 보고 배운 언론에 대한 지식과 사상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 이상철, 앞의 논문(1991).

2) 《순환일보》의 창간자 왕도의 인적 배경

왕도는 서재필보다 36년이나 앞선 1828년 중국의 소주(蘇州) 성동남(城東南)에서 50여 리(里) 정도 떨어져 있는 장주(長洲)에서 태어났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학업에 토대를 다졌다.²¹⁾ 왕도는 과거에 응시하여 무난히 합격했지만 벼슬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따라 상해(上海)로 나가서 사숙(私塾)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상해에서 왕도는 중국 사람들과 동양 문명에 대한 서양인들의 무시(無視)와 서양이 중국에 가져다주는 문물을 접하면서 갈수록 많은 충격을 받았다.²²⁾

1849년 그의 아버지가 병사하자, 그는 아버지 대신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하여 동년 9월 영국 전도사 메드허스트(Walter H. Medhurst, 麥都思)가 운영하던 묵해서관(墨海書館)에 취직해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다. 메드허스트는 1815년 영국 선교사 모리슨(Robert Morrison, 馬禮遜)과 함께 말라카에서 중국어로 된 최초의 잡지 『찰세속매 월통기전』을 창간하고, 1823년에는 『특선촬요매월통기전(特選撮要每月統記傳)』, 1828년에는 『천하신문(天下新聞)』이라는 중문 잡지도 창간한 인물이었다.

메드허스트는 1849년경부터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도 시작했는데, 왕도는 1849년부터 13년 동안이나 그 일을 도와주었다. 그러면서 왕도는 서양 서적들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중에는 과학과 서양의 역사·지리에 관련된 책이 많았다. 또한 그는 서양 선교사들이 간행하는 신문과 잡지를 열심히 읽으면서 신문과 잡지의 간행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왕도는 서양의 서적들과 신문·잡지를 읽고, 13년 동안이나 서양 선교사들과 접촉하면서, 서양이 보통의 오랑캐(夷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다. 또한 그는 서양과 평화롭게 지내자고 중국인들에게 역설하기도 했다.²³⁾ 한편 왕도는 당시 중국의 정치와 사회 개혁을 위한 자신의 복안(腹案)들을 작성하여 청정(清廷)에 여러 번 상서(上書)했다. 그러나 청정에서 그의 의견을 무시하자, 그는 당시에 청조(清朝)를 반대하

21) 張海林, 『韜園文錄外編』 卷11, “韜園老民自傳”.

22) 王韜, 『韜園尺牘』 卷3 光緒 23年, 5쪽.

23) 王韜, 『韜園尺牘』 卷四(1959), 8쪽, “哲人取法於彝狄，孔子學在四裔，亦視其法何如耳”.

며 반란을 일으켜 태평천국(太平天國)을 수립했던 태평천국의 충왕(忠王) 양수청(楊秀清)에게 자신의 개혁안을 올렸다. 그러자 반도(叛徒)들과 접촉한 혐의로 청정에서 왕도를 체포하려고 하자, 1862년 왕도는 서양 선교사들의 도움을 얻어 홍콩으로 피신했다.²⁴⁾

홍콩으로 피신한 왕도는 영국 선교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영화서원의 교장이었던 영국 선교사 제임스 레그(James Legge)를 도와 10년간에 걸쳐 중국의 오경(五經)을 영어로 번역하고, 거기에 주석(註釋)을 붙이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는 레그가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중국의 저작물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종사했다. 영국에 돌아간 레그가 왕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자, 레그는 왕도를 영국으로 초청했다. 그리하여 1867년 왕도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2년 4개월 동안 머물면서 서양세계와 직접 접촉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으며, 첫 번째로 유럽을 방문한 중국학자가 되었다.

영국에서 2년 4개월 체류하는 동안 왕도는 영국의 완비된 도시 환경 시설, 발달된 공업 시설, 그리고 앞선 정치제도와 사법제도 등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편 그는 동양의 지식인 신분으로 영국인들에게 동양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인 옥스퍼드대학의 초청을 받아 그곳에서 중국과 영국과의 관계에 관한 연설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1870년 1월 레그와 함께 홍콩행 선박에 올랐는데, 2년간에 걸친 유럽생활은 그의 사상의 형성과 변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그는 서양 나라들은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서양의 문화도 찬란한 문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서양의 발달된 문물제도를 받아들여 중국의 낡은 문물제도를 개혁하려는 '변법자강(變法自強)'의 사상을 갖게 되었다.

한편 영국 언론의 발전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온 왕도는 신문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깊어졌는데, 영국은 1832년부터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통제가 점점 풀리면서 신문이 크게 발전했다. 그리하여 “일보(日報), 월보(月報), 주보(週報), 반월보(半月報) 등 각종 신문이 발행되고, 또한 법률에 관한 법보(法報), 의료에 관한 의보(醫報), 농업·상업에 관한 농·상보(農·商報) 등의 신문이 분야별로 나왔으며,

24) 張海林, 『王韜評傳』(南京大學出版社, 1998).

심지어 아동에 관한 신문도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원·하원, 각성·시·현 정부, 각 법원의 판례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영국 대사에 관한 내용 등과 국왕 활동의 정오(正誤), 국사 문제에 관한 의원들의 토론, 국내외 공·상업의 발전 상황 등을 모두 실었는데, 이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왕도를 놀라게 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왕도를 감동시킨 것은 영국의 《타임스(Times)지》가 국내외에서 생긴 중대한 일을 모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이었다.²⁵⁾ 또한 그는 서양 신문들이 종수와 발행부수가 많고, 전보로 소식을 전해주어 시효성(時效性)이 뛰어나다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놀랐다. 그리하여 왕도는 영국으로부터 귀국한 지 4년 뒤인 1874년에 홍콩에서 《순환일보》라는 신문을 창간하고, 사설을 통하여 변법자강을 외치면서 중국의 언론 발전을 위한 선도자가 되었다.

2. 서재필의 《독립신문》 창간 동기

진술한 바와 같이 1894년 7월 한국정부는 갑오개혁을 단행하면서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개화파 인사들에 대한 사면령(赦免令)을 내렸다. 그러자 이듬해 5월 새로 들어선 박정양(朴定陽) 내각은 서재필을 외무협판으로 임명하면서 그의 귀국을 종용했고, 그즈음 미국에 들렀던 박영효도 서재필에게 귀국을 권유했다. 그러자 서재필은 12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1895년 12월 26일 조국의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본국 사정을 듣게 되자, 나는 즉각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큰일을 해볼 좋은 기회가 닥쳐왔다고 깨달았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내가 마음 깊이 그리던 자유와 독립의 이상(理想)을 실천할 천재일우의 시기가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었다”고 했다.²⁶⁾

따라서 서재필이 귀국한 것은 그가 12년 동안 미국에서 몸소 경험하고 배웠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조국에서 실천에 옮겨보려는 의욕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갑신정변에 가담하여 역적으로 몰렸던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야망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25) 王韜, 『緇園文錄外編』(上海書店出版社, 2002), 171쪽.

26) 金道泰, 앞의 책(1973), 194쪽.

하지만 서재필이 12년 만에 서울에 돌아와 보니, 국내 사정은 그가 조국을 떠날 때보다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낙후한 조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중을 계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약하고 가난하여 외국에 대접을 못 받고 국내에 불편한 일이 많은 것은 백성이 어리석기 때문이므로, 문명이 진보하려면 인민 교육을 제일 사무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⁷⁾

그리하여 귀국 직후인 1896년 1월 중추원 고문에 임명된 서재필은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하여 신문을 발행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바로 《독립신문》의 주요 창간 동기였는데, 이러한 동기는 그의 자서전에도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오직 교육, 특히 민중을 계발함에 달렸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선 신문을 발행하여 민중을 계몽하기로 했다”고 밝혀놓았다.²⁸⁾ 이처럼 그는 국민들의 민지(民智)를 계발하여 나라를 부흥시키고, 외세의 침략에 의하여 상실되어가던 국권(國權)을 만회하고자 했는데, 이와 같은 《독립신문》의 창간 동기 내지 목적은, 서재필이 8·15 광복 후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의 워싱턴으로 돌아가던 중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아래와 같은 강연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

…… 우리가 이와 같이 싸우는 틈에 언제나 외국인에 기회를 주었고, 외국인이 이 틈을 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를 지휘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중국이 왔고 다음에는 일본이 왔다. 50년 전 아라사가 조선을 도모할 당시, 내가 조선에 있어 그 일을 알고 신문을 발행하여 일반민중에게 알렸다. 처음에 관원들에게 말하니 관원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임군에게 말씀을 드리니 임군이 또한 듣지 않고 평민은 모른다. 그리하여 내가 생각하기를 임군과 량반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평민 상사람과 가치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드디어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민지계발로부터 국권만회를 창도하였다.²⁹⁾

한편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세계 여러 나라에 정확하게 알려주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는데, 《독립신문》의 발행 계획을 보면, “위선 제일착으로 영한문의 신문을 발간할 생각이며, 목적은 사회개량의

27) 서재필, 「공기」,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창간호, 1896년 11월 30일자.

28) 金道泰, 앞의 책(1973), 24쪽에서 재인용.

29) 한원영, 앞의 책(2002), 59쪽에서 재인용.

지도에 두고 또한 조선의 현장을 서양 각국에 알려야 되겠다”고 밝혀놓았다.³⁰⁾ 그리고 우리의 훌륭한 문화를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서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도 자주독립국가임을 인식시키려는 데도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창간하면서 한자를 쓰지 않고 한국의 정음(正音, 즉 한글)과 영문 두 가지로만 발행했는데, “우리 문자로 신문을 발행한 것은 조선 사람은 조선 문자로 신문을 발행하는 문명인이라는 것을 세계에 인식시키기 위함이었고, [...] 영자신문을 발행한 이유는 우리나라 사정을 널리 세계 각국에 소개하기 위해서였다”고 그의 자서전에 밝혀놓았다.³¹⁾

3. 왕도의 《순환일보》 창간 배경

위에서는 우선 한국 《독립신문》의 동기부터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중국 《순환일보》의 창간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순환일보》의 창간자 왕도가 어떻게 해서 신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신문의 기능(機能)과 중요성 등을 인식하여 마침내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되었는지부터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독립신문》의 창간자 서재필은 미국에서 12년 동안이나 살면서 신문의 기능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반면, 《순환일보》의 창간자 왕도는 주로 중국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과 이들이 발행한 신문·잡지들을 통하여 신문의 기능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 신문에 대한 왕도의 관심의 시작과 발전

우선 왕도가 서양의 언론문화인 근대적 신문을 처음 접하게 된 과정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앞서 말했듯이 왕도는 장주(長洲)의 보리촌(甫里村)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이곳에는 신문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1848년, 그의 나이 20세일 때 상해로 올라와서 처음 신문을 구경했으며, 다음 해부터 서양 선교사들이 경영하던 북해서관에서 성경 번역 일을 도우면서 신문·잡지와 근대적 서적들을

30) 이광린, 「서재필의 독립신문 간행에 대하여」, 『한국개화사상연구』(일조각, 1979), 164쪽에서 재인용.

31) 金道泰, 앞의 책(1973), 245쪽에서 재인용.

접하게 되었다. 그가 일하던 묵해서관에서는 1850년 서양으로부터 새로 운 활판인쇄기를 구입하여 18개월 만에 11만 5천 권의 『신약성서(新約聖書)』를 찍어냈는데, 이 뛰어난 성능을 보고 그는 크게 놀랐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서양의 인쇄출판 기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왕도의 관심은 그가 1862년 홍콩으로 피신하면서 더욱 높아졌는데, 당시 홍콩에서는 근대적 신문·잡지·서적의 인쇄출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문 신문도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중문 신문에 대하여 왕도는 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1864년 왕도는 《근사편록(近事編錄)》이라는 중문 신문의 주필을 맡아 자신이 직접 신문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1867년에 왕도는 앞서 말했듯이 영국 선교사 레그의 초청으로 영국으로 건너가, 2년여 동안 레그의 중국 경전(經典) 영어번역 작업을 도와주면서 영국의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인쇄공장, 제지공장 등을 견학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도로 발전된 신문·잡지·서적 등의 출판사업에 매혹되었는데, 그의 영국 간행문을 보면 활자 이외에도 지형(紙型), 연판(鉛版, stereotype), 사진전기부식(electrotype) 등에 관한 기술을 언급하면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³²⁾

이처럼 왕도는 유럽 여행을 통하여 서양의 발달된 언론출판 사업에 대해서 한층 더 깊게 알고 그 기능과 중요성 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신문이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제국(諸國)에서 발행하던 일간지(日刊紙)의 실태·내용·기능 등이 매우 흥미로웠기 때문인데, 이에 관하여 왕도는 귀국 후 아래와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일간신문들이 유럽 각 나라에서 흥행한 지 꽤 오래되었고, 신문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나라의 성쇠(盛衰)와 국민들의 생활을 알 수 있으며, 나라의 정치·경제·문화에 관한 모든 분야의 내용 모두 신문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 서양 나라들이 서로 소식을 빼는 시일 내에 주고받을 수 있고 여론이 활발하게

32) 蘇精, 「從榮華書院到中華印務總局：近代中文印刷的新局面」, 林啓彥·黃文江, 『王韜與近代世界』(教育圖書公司, 2000), 305쪽에서 재인용.

진행된다는 것은 신문의 발행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중국도 이러한 신문을 채용하여, 국민들이 변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여론의 중요성을 깨우쳐야 한다.³³⁾

1870년 영국에서 귀국한 왕도는 강소성(江蘇省) 순무(巡撫) 정일창(丁日昌)에게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어, “신문을 창간하고, 또한 그 기사들을 외국어로도 작성하여 중국을 적극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선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일창으로부터 아무런 반응도 없자, 왕도는 자신이 직접 신문을 창간하기로 마음을 먹기 시작했던 것 같다.³⁴⁾ 그는 신문 발행을 위한 경험을 더 풍부하게 쌓기 위하여 당시 홍콩에서 발행하던 영문지(英文紙)의 중문판 『화자일보(華字日報)』³⁵⁾의 주필을 맡아서 신문을 만드는 한편, 『순환일보』의 창간 준비를 진행하여 1874년 드디어 창간호를 냈다. 그렇다면 왕도가 『순환일보』를 창간한 구체적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2) 왕도의 『순환일보』의 창간 동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왕도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된 것은, 서양 선교사들과 접촉하면서 이들이 발행하는 신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영국으로 건너가 신문의 발달과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면서 중국에서 신문을 직접 발간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자신의 이상(理想)을 실천에 옮기게 한 직접적 동기, 즉 『순환일보』의 창간 동기에 대하여 뢰광임(賴光臨)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³⁶⁾

첫째, 왕도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동기는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다. 유럽에 다녀온 왕도는 홍콩의 영화서원에서 레그가 중국 고전 경문을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었으나, 영화서원이 해체되고 레그가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생활의 보장이 없어졌다. 그러자 왕도는 영화서원의 인쇄기계들을 인수하여 인쇄공장을 세웠다. 그런데 당시

33) 夏良才, 「王韜的近代輿論意識與循環日報的創辦」, 『歷史研究』, 1990년 2월호, 159-160쪽.

34) 蘇精, 「從榮華書院到中華印務總局: 近代中文印刷的新局面」, 林啓彥·黃文江, 앞의 책 (2000), 306쪽.

35) 영문지 *China Mail*(德臣西報)의 중문판으로서 A. Shortrede가 1845년 창간.

36) 賴光臨, 『中國近代報人與報業』(台灣商務印書館, 1980), 117-121쪽.

홍콩은 상업적으로 번창하면서 각종 뉴스와 정보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신문은 겨우 《중외신보》와 《화자일보》 2개밖에 없어서 많은 시민들의 뉴스 추구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틈타 왕도는 1874년 《순환일보》를 창간했으며, 처음에는 주로 선박소식과 상업적 뉴스를 전달했다.

둘째, 왕도가 《순환일보》를 창간한 또 하나의 주요 동기는, 자신의 개인적 포부(抱負)를 이루기 위해서였다. 벼슬하는 것이 그의 일생 동안의 야망이었다고 하겠는데, 그의 인생 경험으로 살펴보면 그는 명예를 매우 선호하는 사람이었다. 태평천국의 반란시기에 왕도는 태평군을 진압할 수 있는 대책을 진술한 서한을 청국정부의 관료에게 올렸다. 그러나 청정(淸廷)에서 그의 대책을 무시하자, 왕도는 태평천국 편으로 돌아서서, 태평천국의 왕에게 신문을 발행하라는 내용의 상서를 올렸다.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 청국정부에서 왕도를 체포하려 하자, 그는 홍콩으로 피신했다. 그리고 그 뒤 영국에 다녀와서 왕도는 《순환일보》를 창간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변법자강사상을 외침으로써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여 “벼슬을 안 해도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³⁷⁾

셋째, 왕도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된 것은 중국의 자강(自強)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순환일보》를 발간하던 시기에는 태평천국운동을 비롯한 여러 내란이 거의 다 끝났고, 1860년대부터 찍튼 양무운동(洋務運動)이 중국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수구적(守舊的) 청국정부는 조상들이 세운 법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전히 낡은 법률만 지키려고 하자, 이에 대하여 왕도는 아래와 같이 비판하기도 했다.

조상들이 이런 법들을 세웠을 때 세계의 형세가 아직 변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1,000년 동안 없었던 형세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에 서양의 모든 기술 문명들은 우리들이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것들이다. 그들이 서쪽에 있고 우리는 동쪽에 거주하고 있어 서로 아무 관련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앞선 기술들로 우리를 침략한다. 우리는 기술 면에서 그들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이탈리아는 맹주를 하다가 국가 실력이 떨어졌고, 러시아는 땅이 넓다는 것으로 유럽을 정복했으며 일본은

37) 呂實強, 『王韜評傳』 제61권(書和人, 1967), 480쪽.

변법으로 나라가 강해졌다는 것 등 모두 10년 만에 나타난 일들이다.³⁸⁾

바로 이러한 말을 통해서도 왕도가 중국이 약으로부터 강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도는 중국이 강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금 현행하고 있는 낡은 법들을 타개하고 서양의 앞선 기술 문명을 따라하는 길밖에 없음을 파력했다. 그리하여 뢰광임은 왕도가 이러한 자강사상을 전파하여 중국의 자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순환일보》를 창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차배근은 왕도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된 근본적 동기는 “그 당시에 중국에서 서양인들에 의해 발행되고 있던 영자신문의 중문판 등이 중국에 대한 서양인들의 여론을 오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려는 의도에서였다” . 왜냐하면 왕도의 ‘상방조현(上方照軒)’이라는 글을 보면, “마땅히 우리도 중문 일보를 발행하여-서양 사람들의 마음을 만회(挽回)시켜야 한다. 근래에 서양인들은 중국 땅의 개항장들에 일간신문들을 창설했는데 [...] 그들이 논하는 바는 왕왕 중국을 과소평가하는 반면에 서양을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 흑을 백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만약 우리가 여론을 향도할 위치에 있다면, [...] 저들이 어찌 사실을 날조하고 계교를 부릴 수 있겠는가?”라고 통탄했는데, 바로 이러한 그의 생각이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만든 근본적 동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⁹⁾

그러나 본 연구자가 고찰한 바에 의하면 왕도가 《순환일보》를 창간한 근본적 동기는 무엇보다도 역시 민족 자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왕도에게는 무한한 재주와 능력이 있지만 그 뛰어난 재주를 살릴 만한 기회가 없다는 것은 낙후된 과거 제도가 왕도뿐 아니라 19세기 말 중국 지식인들에게 가져다준 불행이었다. 남들과 다른 인생 경험은 왕도로 하여금 청국 정치제도의 부패를 깊이 인식하게 만들었고, 중국이 다시 부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게 했다. 항상 조국의 운명을 걱정한 왕도는 신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문을 창간함으로써 민족 자강을 호소하는 길을 찾았다. 즉, 왕도가 ‘상반위여중승(上潘偉如中丞)’이라는 글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중국이 언젠가 다시 국가 위풍을

38) 賴光臨, 앞의 책(1980), 120-121쪽.

39) 차배근, 앞의 책(1980), 173쪽.

재현하도록 하기 위해 매일 중국의 외교 문제를 심사숙고한다. [...] 중화민족의 적에게 적개심을 불태우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 민족을 침략하는 열강들을 타개하고 우리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외국의 앞선 기술을 배워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을 향상시킨다”⁴⁰⁾는 것이 왕도가 《순환일보》를 창간한 동기에 대한 가장 좋은 천명이라고 하겠다.

IV. 《독립신문》과 《순환일보》 창간 동기의 비교

1. 두 신문의 시대적 창간 배경의 비교

《독립신문》과 《순환일보》가 창간된 시기의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산업혁명 이후 경제 실력이 급속도로 발전된 서양 자본주의 나라들이 동양 나라에 자본을 수출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동양을 침략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봉건사회의 말기에 있던 한국과 중국은 여러 가지 내우(內憂) 속에서, 외국의 앞선 기술문명을 무시하고 여전히 ‘폐관쇄국(閉關鎖國)’의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중국은 1840년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할 수 없이 개항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은 일본의 강요에 의하여 1876년 일본과의 수호조약(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들 중 일부인 개화파 인사들은 서양의 앞선 기술문명을 도입하여 국내 개혁을 도모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에서는 1860년경부터 ‘자강운동(自強運動)’의 짹이 움트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는 1876년 개항 이후부터 개화운동이 서서히 일어나다가, 1884년에는 김옥균을 비롯한 한국의 개화파 인사들이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켰으나, 사흘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개항 이후 서양 열강이 한국과 중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와 함께 서양의 문물제도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때 ‘신문’이라는 서양의 언론문물도 이입(移入)되었으며, 이러한 서양의 언론문물을 중국

40) 黃旦, 「王韜新聞思想試論」, 『新聞大學』, 1998년 秋, 69쪽에서 재인용.

과 한국에서 수용함으로써 드디어 한국과 중국 땅에도 '신문'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개명한 양국의 지식인들이 신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개화사상(한국의 경우)과 변법자강사상(중국의 경우)을 전파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개화파의 선도자 서재필이 1896년 한국 최초의 민간지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12년이 앞선 1874년 변법자강운동의 선도자 왕도가 중국 최초의 민간지 『순환일보』를 창간했다. 따라서 두 신문의 시대적 창간 배경은 서로 비슷했다.

2. 두 신문 창간자 배경의 유사성

한국의 『독립신문』과 중국의 『순환일보』의 창간 배경을 고찰하기 위하여 위에서는 우선 그 창간자들인 서재필과 왕도의 인적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를 보면 비록 나라와 생존시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점들은 두 사람이 자기 조국에서 최초의 민간신문들을 창간하는 데 중요한 배경요인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서재필과 왕도의 여러 가지 인적 공통점들 중에서 두 가지만 간단히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서재필과 왕도는 다 같이 보수적 봉건 지식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전통적인 동양 문화의 교육을 받았다. 한편 이들이 성장한 시대는 19세기 말 한·중 양국이 봉건사회의 말기에 처해 있었고, 내적으로는 정치가 부패하여 민중이 조정에 대한 불만으로 반란을 일으켰으며, 외적으로는 서양의 침략에 직면했으나 그에 저항하지 못하는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양을 따르자는 개화사상이 대두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바로 이런 시대에 살았던 서재필과 왕도는 서양의 발전된 문명과 사상을 받아들여 조국을 부강하게 만들자는 한·중 양국의 개화사상의 선도자가 되어, 직접 신문을 창간하여 특히 논설을 통해서 개화사상을 고취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최초의 언론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둘째, 서재필과 왕도 모두 보수적 봉건 지식인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 위와 같은 새로운 개화사상을 갖게 된 것은, 각각 미국과 영국에 가서 서양의 자유자본주의 문물제도와 사상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고국을 떠나 서양에 가게 된 계기는 서로 달랐는데, 서재필은 정치적 망명을 위하여 할 수 없이 미국에 간 것이고, 왕도는 영국 선교사의 초청을 받아서 영국으로 간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계기야 어떻든 간에 두 사람은 모두 자본주의 경제와 기술문명이 발달된 서양 나라에 가서 선진 기술문명과 사상을 몸소 체험하며 자기 모국의 후진성을 통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서양의 사상을 받아들여 서재필은 한국의 개화방안을 찾아냈고, 왕도는 중국의 변법자강의 길을 찾아냈다. 그리고 귀국하여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왕도는 『순환일보』를 각각 창간하여,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개화사상과 변법자강사상의 전파에 진력했다.

3. 두 신문 창간 동기의 비교

위에서는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한 동기와 왕도가 『순환일보』를 창간한 동기에 대해서 각각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들 두 사람이 신문을 창간한 동기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우선 공통점부터 살펴보면 서재필과 왕도가 신문을 발간한 것은 모두 조국을 발전시킴으로써 제국주의 나라들의 침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애국적 동기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업을 마친 서재필은 미국의 민주주의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은 더욱 악화된 한국의 국내 형세에 직면하여 갑신정변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민중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당시 여러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을 당하고 있던 한국은 자주와 독립을 이루고 열강의 침략을 벗어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재필이 신문을 발행하는 목적은 국민 계몽과 더불어 한국의 지식인들과 백성들에게 서양의 민주주의 사상을 심어줌으로써 한국을 개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서재필의 『독립신문』 창간 동기는 왕도가 『순환일보』를 창간한 동기와 많이 흡사하다. 왜냐하면 중국의 실력이 날마다 떨어지고 열강들의 침략이 날마다 강화되자, 신문 발행을 통하여 서양의 앞선 문명을 소개함으로써 정치 면에서 변법자강의 사상을 고취하고자 한 것이 왕도가 『순환일보』를 창간한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왕도는 2년 동안 영국에

서 생활하면서 입헌군주제도를 체험했는데, 그가 고취한 변법(變法)은 낡은 법률제도를 변경하는 한편, 중국에서도 군주입헌 정치제도를 실현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서재필의 『독립신문』 창간 동기와 왕도의 『순환일보』 창간 동기의 공통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둘 다 신문을 통해서 민중을 계발하는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활하는 시대와 나라의 형세 및 개인적 생활의 경험으로 인하여 서재필은 한국이 자주독립의 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미국의 민주주의 사상을 전파한 반면, 왕도는 중국이 일본처럼 변법을 통해서 부강해질 수 있도록 변법사상과 영국의 입헌군주사상을 전파했다.

둘째, 서재필이나 왕도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앞서 밀했듯이 서재필과 왕도는 처음부터 아주 강한 정치적 야망을 지닌 사람들이었는데, 서재필은 왕도보다 운이 좋게 양반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그 당시 한국의 정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개화주의자들과 많이 접촉했으며, 갑신정변 이전의 인생은 아주 순조로웠다. 그러나 갑신정변에 실패한 서재필은 역적으로 몰려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12년 동안 살아야만 했다. 그러다가 사면령이 내리자 귀국하여 자신의 원래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한편,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개화에 앞장섰다.

한편 왕도는 몰락한 귀족 집안 출신으로서 과거시험의 통과만이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 과거의 실패로 왕도는 벼슬길이 완전히 끊겼다. 하지만 그는 벼슬에 대한 개인적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청국정부에 상서를 해서, 자기를 조정에서 중용(重用)해주기를 바랐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태평천국 쪽에서 벼슬을 구했지만, 이를 알게 된 청정(淸廷)이 그를 체포하려 하자 홍콩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홍콩에서 서양 선교사들의 중국 고전 경문들의 번역 일을 돋다가 영국에 초청되어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의 운명을 염려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개혁파가 되었다. 그리고 『순환일보』를 창간하여 논설을 통해서 자본주의 개혁사상을 외치면서 그의 이름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서재필과 왕도가 신문을 창간한 동기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개인적 포부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서재필과 왕도는 당시 중국과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발행한 신문이 중국과 한국에 관한 일들을 오도하는 상황을 직면하면서 스스로 신문을 발간하여 국내 사정을 외국에 올바로 전달하겠다는 뜻에서 신문을 창간한 공통점도 있다. 그러나 영어 능력이 뛰어난 서재필은 왕도보다 한 발 앞서 영어판을 만들었다.

이상과 같이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왕도가 《순환일보》를 창간한 동기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약간의 차이점도 없지 않은데, 기본적 동기는 모두 국가를 부강하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서재필은 민지계발을 통하여 국권을 만회하려고 한 반면, 왕도는 국민들에게 변법자강을 호소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다.

V. 두 신문이 자국의 언론사상에 미친 영향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언론사상은 각각 이후 한국과 중국의 언론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독립신문》과 《순환일보》는 신문의 통상하(通上下) · 증식견(增識見) · 우권징(寓勸懲) 기능과 그 중요성에 관한 언론사상을 언론인들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줌으로써, 이후 한국과 중국 언론이 이 세 가지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삼게 만들었다.

둘째, 《독립신문》과 《순환일보》는 국민 대중의 계몽을 신문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으면서, 양국의 국민들에게 각각 근대화사상을 고취, 인식시키고, 또한 애국·애족심을 갖게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독립신문》과 《순환일보》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최초로 창간한 근대적 민간신문으로서, 양국 국민들에게 각각 근대신문의 편집체재, 기사 형식과 내용, 발간횟수, 배포방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전형(典型)을 보여줌으로써, 양국 신문들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독립신문》과 《순환일보》는 위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근대 언론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은 개화사상을, 《순환일보》는 변법자강사상을 전파함으로써 두 나라의 근대화와 역사의 흐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두 신문이 각각 이후 한국과 중국의 언론사상에 미친 영향에는 차이점도 다소 존재하는데, 첫째, 《독립신문》은 언론의 엄정중립과 불편

부당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이후 한국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한국의 언론은 엄정중립의 불편부당을 가장 중요한 언론의 태도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환일보》는 변법자강파의 정치사상을 전파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이후의 중국 언론은 정론적(政論的) 언론사조의 경향을 많이 갖게 되었다. 둘째, 《독립신문》은 대중을 위한 대중적 신문을 지향(指向)한 반면, 《순환일보》는 창간자인 왕도가 언론인은 나라의 엘리트들로서,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주필이나 기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이후 중국의 언론도 엘리트주의 성향을 갖게 만드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독립신문》은 미국식의 만민평등(萬民平等)의 민주사상(民主思想)을 강조한 반면, 《순환일보》는 영국식의 가부장적 민주사상을 지지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국민들이 서로 약간 다른 정치사상을 갖게 만드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VI.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국 최초의 민간지인 《독립신문》과 중국 최초의 민간지인 《순환일보》의 창간 동기에 대해 비교연구를 해보았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 실력이 급속도로 발전된 서양 자본주의 나라들은 동양 나라에 자본을 수출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동양을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봉건사회의 말기에 있던 한국과 중국은 여러 가지 내우(內憂) 속에서, 외국의 앞선 기술문명을 무시하고 여전히 ‘폐관쇄국(閉關鎖國)’의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중국은 1840년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할 수 없이 개항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은 일본의 강요에 의하여 1876년 일본과의 수호조약(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을 하게 되었다. 서재필과 왕도는 조국을 발전시켜서 서양 제국주의 나라들의 침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애국적 동기에 의해 신문을 창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서재필과 왕도는 모두 신문을 통해서 민중을 계몽하고, 새로운 개혁사상을 전파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기본적 동기에서 각각 《독립신문》과 《순환일보》를 창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 이외에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동기도 있었다. 한편 왕도의 경우는 생계(生計)를 위한 동기도 있었는데, 이는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한 동기와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다.

《독립신문》과 《순환일보》는 한국과 중국의 언론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신문으로서 두 신문의 기능·내용·영향 등을 서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한국과 중국의 현실 언론의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金道泰, 『서재필 박사의 자서전』. 乙酉文化社, 1973, 56쪽.
- 서재필, 「공기」,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창간호, 1896년 11월 30일자.
-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1976, 7쪽.
- 양국종, 「서재필 사상이 우리나라 근대화에 미친 영향」.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5.
- 유재천, 「《독립신문》의 국문판과 영문판 논설 비교분석」. 한국언론학회언론사연구회 편, 『《독립신문》과 한·중·일 근대신문의 생성』, 한국언론학회 언론사 연구회, 1996, 118-120쪽.
- 유훈, 「《독립신문》에 나타난 ‘언론자유’ 개념의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4.
- 이광린, 「서재필의 독립신문 간행에 대하여」. 『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1979, 164쪽.
- 이상철, 「서재필과 《독립신문》 사상에 관한 연구」. 『언론연구논집』 제13집, 중앙대학교, 1991.
- 정진석, 「《한성순보·주보》에 관한 연구」. 《신문연구》, 1983년 겨울호, 1-8쪽.
- _____, 『언론과 한국 현대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20-21쪽.
- 차배근, 「우리나라 조보에 관한 신문학적 분석고」. 『서울대학교신문연구소학보』 제17집, 1980, 65-102쪽.
- _____, 『중국전근대언론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1쪽.
- _____, 『중국근대언론사』. 나남출판사, 1985, 19-22쪽.
- 한원영, 『한국신문 한 세기』. 푸른사상사, 2002, 43쪽.
- 현종민, 『서재필과 한국 민주주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16쪽.
- 賴光臨, 『中國近代報人與報業』. 台灣商務印書館, 1980, 117-121쪽.
- 方漢奇, 『中國新聞事業通史』 第一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478쪽.
- 呂實強, 『王韜評傳』 第61卷. 書和人, 1967, 480쪽.
- 王韜, 『韜園尺牘』 卷4. 光緒23年, 8쪽.
- _____, 『韜園尺牘』 卷3. 光緒23年, 5쪽.
- _____, 『韜園文錄外編』. 上海書店出版社, 2002, 171쪽.
- 林啓彥·黃文江, 『王韜與近代世界』. 教育圖書公司, 2000, 305쪽.
- 張海林, 『王韜評傳』. 南京大學出版社, 1998.
- 夏良才, 「王韜的近代輿論意識與循環日報的創辦」. 『歷史研究』, 1990년 2월호, 159-160쪽.
- 黃旦, 「王韜新聞思想試論」. 『新聞大學』, 1998년 秋, 69쪽.
- 忻平, 『王韜評傳』.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0, 120쪽

국 문 요 약

이 글은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자국인(自國人)의 손으로 처음 창간한 최초의 민간지였던 한국의 《독립신문》과 중국의 《순환일보》의 창간 동기를 고찰하고 서로 비교하여, 두 신문이 한국과 중국의 언론 발전에 각각 미친 영향을 재조명해보고자 한 것이다.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 동기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문헌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관련된 논문, 개인 전기, 신문 원본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해서 《독립신문》과 《순환일보》의 창간 동기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서재필과 왕도가 각각 《독립신문》과 《순환일보》를 창간한 기본적 동기는 두 사람 모두 조국을 발전시켜서 서양 제국주의 나라들의 침략에서 벗어나도록 신문을 통하여 민중을 계몽하고, 새로운 개혁사상을 전파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애국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 왕도의 경우는 생계(生計)를 위한 동기도 있었는데, 이는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한 동기와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다.

투고일 2010. 12. 19.

수정일 2011. 1. 28.

게재 확정일 2011. 2. 10.

주제어(keyword) 민간지(the newspaper founded by the private citizen), 창간자 (founder), 언론사상(the thought of journalism), 개화사상(the thought of making people become civilized), 동기(motivation)